

이야기 10 :
착한 며느리 룯

주제말씀
[룯기 1:16b]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옛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동네에는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 후,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였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병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큰 며느리인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룯만 남게 되었어요.

그 후,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두 며느리 룯과 오르바를 불렀어요. "남편도 없으니 이제는 너의 부모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 사람은 너무 슬퍼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결국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나 착한 며느리 룯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룯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오미와 룯은 함께 이스라엘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룯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밭에 나가 곡식을 베었죠. 그런데 나오미와 룯에게는 밭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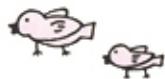
착한 며느리 룯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들로 나갔어요. 룯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였어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룯을 보았어요.

보아스는 하인에게 물었어요.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인이 대답했어요.

"네,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착한 며느리 룯입니다."



보아스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룻이 이삭을 주워 가도록 많이 흘려 놓아라.”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웠니?”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그는 우리 친척이야, 앞으로 그 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날마다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아름다운 룻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마침내 보아스는 사랑스런 룻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었어요.
 나오미도 기뻐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이 오벳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랍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룻기 1:1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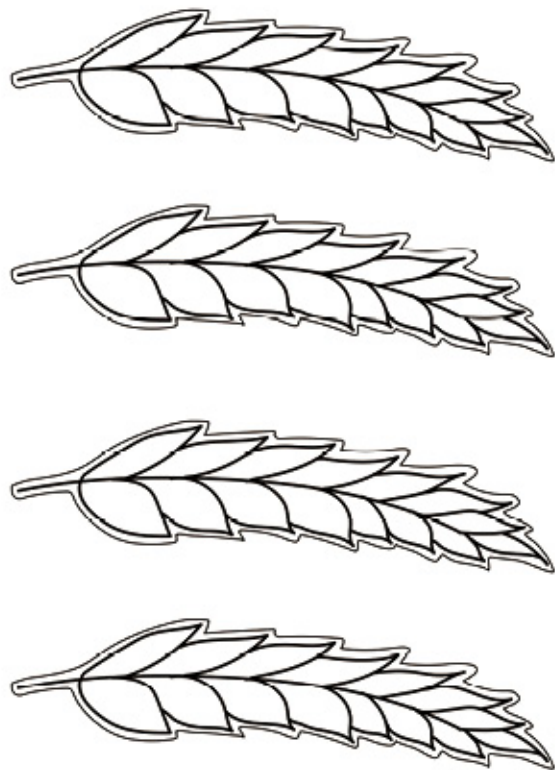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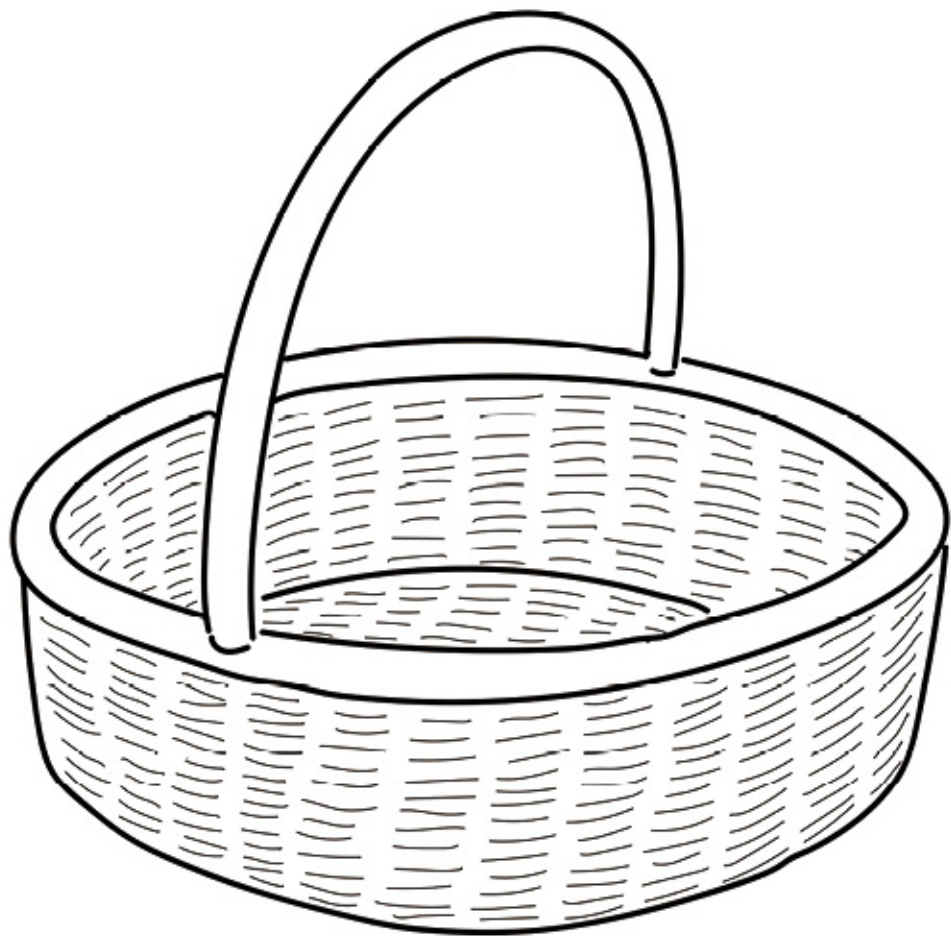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활동 1.

벼이삭을 색칠하고 잘라서 바구니에 붙여보세요. (준비물: 색연필, 가위, 풀)





www.kidsworship.kr



Ministerio de Publicación Cristiano

이름 :